

나주 축산물공판장 이전 놓고 골머리

나주시가 운곡동에 소재한 나주 축산물공판장 이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와 축산 농가는 나주지역에 다른 곳으로 축산물공판장을 이전하려고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아예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공판장 이전 '뜨거운 감자' = 나주시 및 지역 축산농가와 농협중앙회가 나주 축산물공판장 이전 문제를 놓고 최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나주시와 축산 농가는 공판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나주·함평·장흥 등 전남 한우농가 중 65%가 넘는 이 지역 축산농가와 떨어져 전남 거점도축장으로 받들 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축협 회의실에서 신청은 국회의원과 강인규 시장, 농협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 축산물공판장 존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결과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모았지만 농협이 이미 장흥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주위 시선이다.

나주 축산물공판장은 지난해 전남도로부터 '시설을 전면 개선하라'는 이행촉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축산물 공판장은 전국적으로 4곳.

이중 전남지역 소와 돼지의 도축을 책임지고 있는 나주 축산물공판장은 지난 1992년 나주시 운곡동 80번지(부지 4만 326㎡, 건축면적 8522㎡)에 개장했다.

개장 초 한우 20~30두 도축으로 시작한 공판장은 현재 일일 소 100두, 돼지 1100마리 도축과 소 40두, 돼지 150마리 가공을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장 23년이 지나 위생기준 미흡과 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심해 증축이나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다.

또 4년 전부터 흑자로 돌아섰지만 개장 이후 해마다 5억원씩 적자로 20여년 동안 111억원의 누적 적자는 시설노후화에 가중되는 고민거리였다.

나주 축산물공판장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도축 두수를 늘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11년 나주시에 축산물공판장 증·개축을 위한 건폐율 상향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현 부지면적에 건폐율 19.7%를 모두 사용해 더 이상 증축은 힘들고 기존 건축물을 높이는 개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공판장은 기존 건물을 높이기 위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구조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했지만 '소와 냉동장고 등 엄청난 무게를 견디기에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설 노후화로 전남도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나주 축산물공판장. 농협중앙회는 공판장내 소 도축장은 이전하고 전문 돼지도축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후시설 개선 명령에 증개축도 어려워 농협중앙회, 소 도축장 장성 이전 검토 市·축산농 나주 존치 촉구 속 후보지 물색



또 주변 땅을 매입해 증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지만 이 또한 제약이 따랐다.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조례의 경사도 15도 이하 규정을 훨씬 넘는 경사와 주변이 2등급 자연생태계로 지정된 이유 때문이다.

공판장은 기존 부지에서 더 이상 증·개축으로 인한 시설개선은 어렵다고 보고 이전을 결정했다. 이전 후보지로는 전북권과 경상도 지역 일부 축산농가까지 수용하기 위해 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나주 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전남 한우 절반이 경매가격이 높은 충북 음성 공판장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전남 축산농가는 나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장성이 서울 쪽 중도매인들을 끌어들이 가격 높이기 위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A+등급까지는 지역에서 도축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음성공판장에서 A++등급을 받게 되면 kg당 1000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전북에서 물량이 내려와 도축수가 늘어나면 20~30두

씩 사가는 서울·경기지역에 중도매인들이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농협중앙회는 소 도축만 이전하고 나주 축산물공판장 건물 내부에 급속냉동 터널을 설치하는 등 현대화돼 돼지 전용 도축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이전 부지 물색=이처럼 농협이 공판장 이전을 구체화하자 나주시가 부랴부랴 축산물공판장 나주존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나주시는 농협중앙회에 이전 후보지 3곳을 제시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농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나주시는 공판장 이전 후보지로 ▲노안면 유곡리 옛 전남도 축산시험장 ▲세지면 오봉리 ▲영산포 이창동을 제시했다.

이중 노안면 부지는 1992년에 광산구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해 지하수가 오염돼 하루 500t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 도축장에 부적합하고, 이창동 부지는 이미 시에서 다른 용도로 증축하기를 내

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세지면 부지의 경우 예상분양가보다 3배가 올라 부지 매입이 부담스러운 상태다.

공판장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후보지 중 한 곳은 간담회가 있기 전에 이미 다른 용도로 시 건축과에 증축신청을 한 곳인데도 시장과 담당공무원이 이 사실을 모르는지 후보지라고 들고 나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1차적으로 제시한 후보지가 농협으로부터 부적합하다는 답변서가 보내와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만들어 영세 도축장을 구조조정하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거점 도축장을 하나씩 마련하도록 해 13곳이 승인돼 있다"며 "아직까지 전남은 없는 상태로 나주 축산물공판장이 전남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거점 도축장을 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한우협회 나주시지부 임동권 회장은 "20~30년 운송차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육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노안 쪽에 부지를 물색하면 장성과 큰 차이도 없이 수도권 중도매인들이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한우협회 민경현 회장도 "가격 차이로 음성까지 소를 싣고 올라가고 있다"며 "전남 어디든 하루빨리 새로운 곳으로 이전에 축산농가에 고충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 축산농가에 한우축산 규모는 44만두로 일일 도축 두수는 550여두. 이중 절반인 270여두가 음성 등 전남 외 지역에서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지역에 한우 축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1797 농가에 4만3915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글·사진 손영철기자 ycsn@

'녹색에너지 체험전' 개막...6일까지 영산강 체육공원

'2015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체험전'이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나주시 영산강 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체험전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유관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에너지 분야의 전시·관람·체험 종합 전시회이다. 전시관은 전력, 천연가스, 원자력, 석유, 지역난방 등 에너지 자원별 총 6개의 전시관과 에너지 체험 주제관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체험 및 부대행사로 배운관, 체험관, 영상관, 창작관이 별도로 운영돼 태양광자동차 만들기, 에너지와 나의 건강, 그린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체험과 창작을 통한 살아있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주시는 오는 10월 완료되는 '빛가람 에너지 밸리' 첫 번째 실행사업인 원도심 지중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해 ▲나주시 에너지생산 및 사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혁신도시 이전지구 ▲산단단지 분양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밸리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학생들에게는 녹색 에너지에 대한 관람·체험을 통한 살아 있는 교육과 산업단지 분양, 기업유치 홍보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 보물 사찰을 찾아서...40여명 6개 사찰 답사

나주 이야기꾼 강좌 제9강 '나주의 보물 사찰을 찾아서' 체험행사가 최근 40여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불회사 등 6개 사찰에서 진행됐다. 이야기꾼 강사는 '2015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의 하나이다.



나주시 김중순 문화재관리팀장의 해설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관내 죽림사와 불회사, 운흥사, 미륵사, 심향사, 다보사 등 6개의 사찰을 답사하며 지역 불교문화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체험강좌로 실시됐다.

특히 초의선사가 출가한 운흥사의 경우 18세기 초반까지 경내에 30여 동의 건물과 20여 곳의 산내 암자를 거느린 큰 사찰이었음에도 여러 차례의 화재로 소

실돼 넓은 터에 잡초가 무성한 상태였다. 수강생들은 봉황면 덕룡산 자락에 위치한 절전리 석불상과 칠불석상을 보면서 나주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번 사찰답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나주가 천년고도의 역사문화 도시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던 뜻 깊은 답사였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금성산 기슭 생태숲 체험장 다음달 개장

나주 금성산(해발 451m) 기슭에 생태숲 체험장이 7월에 문을 연다. 나주시는 금성산 일대 57만㎡에 탐방로와 전시·교육관 등을 갖춘 생태숲 조성사업을 이달까지 마무리한 뒤 7월 개장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숲 경관 등을 그대로 살린 탐방로(4km)를 개설하고, 3곳에 정자식 쉼터, 숲 관찰데크 등을 설치했다.

산림훼손 지역은 굴참나무와 편백나무 등을 심고 황토길 조성 등 삼림육을 위한 숲으로 조성했다.

숲속교실, 숲속쉼터, 잔디광장, 숲놀이터, 생태습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춘 체험공간도 만들었다.

특히 금성산 자생 동·식물 등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생태관이 마련됐다. 1층에는 세미나, 회의, 쉼터 등 편의시설이 2층에는 고목나무 조형물과 전시관이 조성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금성산 특성에 맞는 생태숲을 조성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의 교육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전북총판 | 010-9087-4859
- 전남총판 | 010-9087-4859
- 경남총판 | 010-3853-5460
- 강원총판 | 010-5792-8872
- 제주총판 | 010-2324-9523
- 경북총판 - 모집중

* 마스코트 제품 및 유통서비스 취급권을 위 총판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번, 편이현, 천사담해 등 담배스메인 지점물 받으신 모든 점주님)